

5월 12일, 일요일.

일요일은 교회를 가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한 뒤 교회를 갔다. 예배를 드린 뒤 교회 전체 회식이 있어서 다같이 피자를 먹으러 갔다. 피자도 얼어 먹은 것이라 기분이 더 좋았고 더 맛있었던 거 같았다. 다 먹고 난 뒤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아쉬워서 친구들과 아이언맨3을 보러갔다. 저번에 한번 본 것이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어서 또 봐도 돈이 아깝지 않았다. 보는 내내 아이언맨 같이 능력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후덥스근했었다. 벌써 봄이 가고 여름이 왔나보다.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빙수를 열심히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조금 빈둥캐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고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었다. 일요일은 주말이어서 참 행복하고 좋지만 월요일은 더는 생각이 늘 들어서 나는 일요일 보다는 토요일이 더 좋 것 같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도록 노력해야겠다 ~